



Market Index / 31일

코스피지수 ▲ 2472.05 +21.12	코스닥지수 ▲ 807.04 +10.02	유가(WTI, 달러) ▼ 91.64 -5.37	환율(원) 1USD 100¥ 1362.43 984.87	살때 팔때 1315.57 951.01	1EUR 1368.71 203.72	1CNY 1315.319 184.32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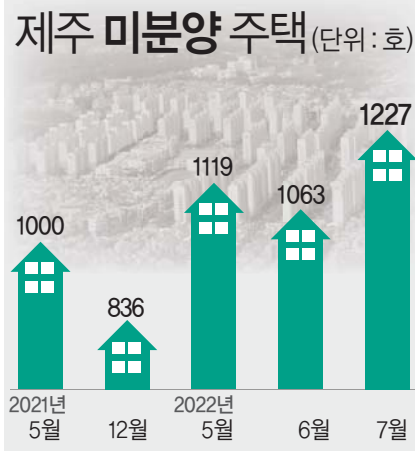
# 제주 주택매매거래 '뚝'

7월 584건으로 1년 전보다 39.0% 감소  
집주인 오른 호가 버티고 수요층은 관망  
미분양도 1227호로 늘어 18개월만 최고

제주지역의 7월 주택매매거래가 1년 전보다 40% 가까이 줄어들며 시장이 바짝 얼어붙었다. 감소세를 보이던 미분양도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할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의 주택통계에 따르면 7월 도내 주택매매거래량은 584건으로 전월(783건)과 전년 동월(957건) 대비 각각 25.4%, 39.0% 감소했다. 2019년 9월(548건) 이후 가장 적은 매매거래량으로, 최근 10년동안 월별 매매거래량이 600건을 밑돈 게 9달뿐인 점을 감안하면 시장이 얼마나 얼어붙었는지 알 수 있다. 올해 1~7월 매매거래량도 5569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7590건)과 비교해 26.6% 줄었다. 매매거래가 감소한 대신 전월세 거래량은 1681건으로 1년 전(1364건) 대비 23.2% 증가한 건수다.

미분양도 몇 달 전부터 빠르게 늘고 있다. 7월 미분양은 1227호로 전월(1063호)보다 15.4% 늘었는데, 2021년 1월(1250호) 이후 18개월만에 최고치에 미분양이 가장 많았던 2018년 3월(1339호)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다. 미분양 중 공사를 모두 마치고도 분양 안된 '준공 후 미



분양'은 7월 743호로 전월(699호) 대비 6.3% 증가했다. >> 표 참조  
제주지역의 주택 미분양은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분양한 휴온 아델리브 더 테라스(전용면적 98㎡ 최고가 10억4500만원)는 68세대를 모집했는데 16명만 청약접수했다. 역시 같은달 제주시 한경면에서 분양한 한일 배라체인 비디아(88㎡ ABC타입 최고가 6억5380만~8억4050만원)도 168세대를 분양했지만 16명만 청약 접수하는데 그쳤다.

청약 미달은 현재 진행형이다.

서귀포시 대정읍에 503세대를 공급하는 한화 포레나 제주에듀시티(84㎡ 최고가 7억1330만원)는 8월 29~30일 1·2순위 청약에서 345명이 접수해 청약 미달이 발생했다. 8월 11~12일 청약을 진행한 안덕면 소재 제주 다이아빌라스 1차(84㎡ 최고가 5억6320만원)도 75세대 모집에 11명만 청약 접수했다.

이같은 미분양은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에 대출금리도 오르면서 구입비용 마련이 어려워졌고, 지난해 도내 분양가격이 유례없이 급등한 이후 전반적인 주택시세가 상승한 게 최근 분양가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수요자들이 너무 비싸다고 여기는 게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상승세를 지속하던 도내 주택가격이 8월 소폭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경기침체 우려와 맞물려 추가 하락 가능성을 점치는 수요층을 중심으로 관망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제주시 노형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을 팔겠다는 집주인은 호가를 내리지 않고 버티고, 매수자들이 그 가격에 사지 않겠다고 해 매매거래가 없다시피 하는 상황"이라며 "집 구입을 고민중인 수요층에서도 금리가 크게 오르다 보니 대출비용 부담이 커진데다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심리도 강해졌다"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산방산 아래 밭 전경 31일 산방산을 곁에 둔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마늘 모종 파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카름스테이' 대표 상품 나왔지만...

도·관광공사, 도내 4개 마을 시그니처 상품 개발  
정보 접근성 부족·예약 시스템 미비... 과제 산적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제주 마을 여행 카름스테이를 대표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놓았다. 하지만 정보 접근성 개선 등 보완해야 할 과제가 수북해 보인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 마을 여행 통항브랜드 카름스테이의 시그니처(Signature) 상품을 개발하고, 카름스테이 전용 홈페이지(www.kareumstay.com)를 개편해 이를 소개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시그니처 상품은 MZ세대, 가족 단위 관광객, 반려견 동반 여행객, 싱클(혼행·혼자 하는 여행) 등 다양한 소비층들의 니즈를 분석해 권역별로 주요 타깃을 설정하고 체류형 농어촌관광 유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을별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설계한 것이다. 공사는 동(동카름)·서(서카름)·남(알카름)·북(웃카름)으로 흩어져 있는 카름스테이 10개 마을 가운데 우선 4개 마을(세화·저지·신창·수산)에 대한 시그니처 상품을 내놓았다.

동카름 세화마을은 혼자 여행을 즐기는 여성, 퇴사 혹은 취업을 준비 중인 MZ세대, 웃카름 수산마을은 몸과 마음에 힐링이 필요한 중장년층, 부모님과 제주를 찾거나 어린 자녀들과 농촌체험을 원하는 3040세대, 나홀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2030세대를 주요 타깃으로 설정했다. 또 서카름 저지마을은 전시·미술관을 많이 찾는 2030세대, 심적으로 여유가 있는 5060세

대, 신창마을은 한적한 시골 바닷가 마을에서 유유자적하게 지내고 싶은 크리에이터, 북러버, 사진애호가, 바이크 라이더 등 취향이 확실한 마니아층이 주요 타깃이다.

주요 콘텐츠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트래킹·요가·바닷가 산책 프로그램에 비롯해 농장에서 즐기는 팜파티, 미술관·전시관·책방 투어 등 마을별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시그니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접근성이 부족해 예약 또는 결제 시스템이 미비해 있는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예약이나 결제 부문은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공사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 올 상반기 제주 창업 기업 1만132개

1년 전보다 4.0% 감소

올해 상반기 제주지역의 창업 기업이 1년 전 보다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1~6월)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

지역 전체 창업기업 수는 1만132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25개 감소했다. 지난 2020년 이후 사업 자동률이 급증한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상반기 창업기업은 5.2% 감소한 것이다.

17개 시도별로는 충남(11.5%)과 강원(1.8%)은 창업이 증가한 반면

부산·세종(9.0%), 서울(8.8%) 등 대부분 지역은 감소했다. 다만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세종(7.0%), 인천(6.3%), 경기(2.0%)는 창업이 늘어난 반면 제주(5.2%), 서울(4.3%), 전남(4.1%) 등 나머지 지역에서 줄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상반기 창업기업 수는 총 69만589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3만4369개) 감소했다.

박소정기자

## 사회적경제기업 용자 지원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장·단기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이 필요한 제주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용

자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이달 16일까지이며, 모집대상은 연매출액 5000만 원 이상인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대출 한도는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이고, 대출기간은 최대 60개월(고정금리 3.0%)이다.

신청은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70-4206-2686.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 국내육성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원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 향, 껍질 벗김이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수출특허 등록완료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화)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 하례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온주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 제라몬** 향량 및 높기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걸로 평가되는 품종.
-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 과수농가 보급품종(1.3~2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리조생, 궁천, 흥진, 카리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 가정원예(조경수)(2~7년생)

하늘, 팔사, 세이늘, 금귤,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몬,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문의: 010-735-220-3)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트묘, 화분묘 분양

사전에약 주문생산 탕빛1호, 선경, 설봉미, 미니몬, 무봉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농업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수산물농산물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010-4736-2479 / 010-6500-232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1(수산리735)

##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 주간 농업농촌소식

####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 노지감귤

- 병해충 방제: 검은점무늬병, 궤양병, 총채벌레, 진딧물, 깍지벌레 등
- 갈습제 살포: 부피경감 및 착색 촉진
- 수용성 갈습제: 8월 중순부터 착색 전까지 10일 간격 2~3회
- 불용성 갈습제: 착색 초기부터 10일 간격 1~2회
- 열매숙기: 착과량이 많은 나무 위주 소과, 중결정과 중점 숙아내기

구 분	9월1일	9월11일	9월21일	10월1일	10월11일	10월21일
작은 열매	38미만	40미만	42미만	45미만	46미만	47mm미만
큰 열매	54초과	57초과	61초과	63초과	66초과	68mm초과

○ 풋갈 출하: 8.1. ~ 9.15.  
 - 농약안전사용 기준 준수 및 잔류농약 검사 시행 안전성 확보

□ 심자화와 채소(양배추, 브로콜리, 콜라비)

- 육묘관리: 30~35일(본잎 4~5매일 때까지)
- 관수는 1월 1~2회, 오전에 관수하고 늦은 오후 관수 지양
- 정식 2~3일 전 육묘 하우스 시설 밖으로 꺼내어 묘를 경화시킴
- 적기정식: 양배추·브로콜리 8월 하순~9월 중순, 콜라비 9월 중하순
- 정식 10~15일 전까지 멀거름을 주고 경운 후 이랑 조성
- 본잎 4~5매일 때 포트에 심어졌던 깊이만큼 심어야 생육이 양호함
- 정식 후 수분관리
- 정식 후 20~30일경 생육 최성기에 접어들며 물을 가장 많이 흡수하므로 토양이 건조하지 않게 관리
- 가을 때 땅 표면만 적시게 물을 주면 석회결핍 등 생리장해가 나타나기 쉬우므로 토양이 충분히 젖도록 관수함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31-93)